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김 혜 온

이 진 순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서적 자율성의 6개 영역과 부모 자녀 관계 2개 영역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국가, 성별, 연령에 따른 3원 변량분석 결과 독일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탈 이상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과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경향을 더 강하게 보인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에게서는 개별화와 자기통제 경향이 더 높았고 책임감은 두 문화에서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탈 이상화, 개별화,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책임감 영역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에서만 나타났다. 한국과 독일 청소년 모두 부모자녀 관계를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였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율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통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부모의 탈 이상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개별화,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어 : 정서적 자율성, 부모지각, 개별화, 책임감, 자기통제,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유보기간(moratorium)으로 이해된다.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려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며 준비를 한다. 또한 이들은 부모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성인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자신만의 비밀영역을 만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부모

본 논문은 2004학년도 목포대학교 해외학술교류협정대학교수와 공동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김혜온, E-mail:hokim@mokpo.ac.kr

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독립된 개체로 성장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부모자녀 간의 안정적 관계가 약해 질 수 있는 것과 같은 부정적 측면 모두를 보인다. 부정적인 측면은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양측에서 모두 경험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는 자녀에 대해 실망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자녀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는 한편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을 여전히 어린 아이 취급하는 부모의 간섭을 귀찮아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율성 획득과정에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크고(Inglehart, 1997)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쉽다(김태준, 2004; 장휘숙, 2005).

발달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석가 Erickson(1977)과 Blos(1983)가 자율성 획득을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Havighurst(1952)도 정서적 자율성의 획득 즉 부모에 대한 아동기적인 종속성에서 벗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적이 되는 것을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성숙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사회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게 되어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독립보다는 심리적인 독립 즉 정서적 자율성의 발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서적 자율성 개념은 부모로부터의 독립(Freud, 1958),

주관적 독립감 (Kandel & Lesser, 1972), 의사결정과 자기통제에서의 자신감(Greenberger, 1984)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이해되었다. 정서적 자율성 즉 청소년들이 발달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의 의식을 개별화(Franz & White, 1985) 혹은 주체성(Bakan, 1966)으로 개념화한 학자들도 있다.

이와 같이 부모(혹은 중요한 성인들)에 대한 정서적 관계의 변화를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인식한 것은 오래 되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Steinberg와 Silverberg(1986)에 이르러서이다. Steinberg와 Silverberg는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 척도를(Emotional Autonomy Scale: 이하 EAS) 개발하였는데 그들은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을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를 이상화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으로 이해하였다. EAS는 부모의 탈 이상화(parental deidealization),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perception of parents as people),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non-dependency on parents), 개별화(individuation)의 모두 4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Steinberg와 Silverberg는 1986년에 865명의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EAS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율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 즉 부모의 탈 이상화, 개별화, 탈 의존성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AS의 이론적 기초는 Blos의 신 정신분석

적 발달이론이다. 정신분석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장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은 줄어들고 친구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신분석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분리(detachment)를 건강하고 자율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조건으로 이해한다(Masche, 1998; Fend, 2001; Flammer & Alsaker, 2002).

한편 Ryan과 Lynch(1989)는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것이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성숙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EAS의 측정 도구로서의 문제와 측정결과의 해석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Ryan과 Lynch(1989)의 연구에는 EAS 외에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 동년배들과의 관계가 포함되었는데 연구결과 EAS로 측정된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자녀 관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동년배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으며 부모로부터 배척을 받는 느낌과는 오히려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독립성 지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후에도 EAS에 의해 측정된 자율성은 건강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Beyers & Goossens, 1999; Beyers, Goossens, Vansant & Moors, 2003), 같은 맥락에서 EAS가 주로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측정하고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즉 EAS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Grotevant, 1998; Schmitz & Baer, 2001; Latzko, Kim & Hoppe-Graff, 2002; Landgraf, 2003; Masche, 2003). 한편 Lamborn과 Steinberg

(1993)는 부모의 지지 정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EAS와 다른 변인들과의 (독립성, 자신감,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음)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 때만 정서적 자율성이 긍정적 발달정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과는 달리 개별화(individuation) 이론에서는 정서적 자율성 획득이 부모로부터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청소년 자녀가 자율성을 획득하면서도 부모자녀가 상호 존중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ofer, 2003; Allen, McElhaney, Kuperminc & Jodl, 2004). Youniss와 Smollar(1985)도 청소년들이 자율적이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분리, 혹은 부모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연대감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상호 모순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Kagitçibasi(2000)는 정신분석학에서 청소년의 자율성 개념이 분리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된 것은 사실상 상호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 차원이 혼돈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두 개념 차원은 “분리-관계성”을 양극으로 하는 개인 간의 거리(interpersonal distance)를 나타내는 개념 차원과 “자율성-타율성”을 양극으로 하는 작인(agency)의 개념 차원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두 주체, 예를 들어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종속적이고 타율적인 관계를 갖게 될 개연성이 높지만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Beyers(2001)는 정서적 자율성을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신뢰감, 부모와 동료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하고 주체성 개념과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자율성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예를 들어 Greenberger(1984)는 자율성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성숙으로 이해하며 독립성, 내적 통제, 자기 주장성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Papastefanou(2000)는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결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Ryan과 Lynch(1989)도 자율성을 개인이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은 정신분석에서 주장된 대로 부모로부터의 분리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자율성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성 획득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필연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도구로 측정된 청소년 자율성 발달 정도와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자율성 발달에 관한 논의는 거의 서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른 문화권에서의 청소년 정서적 자율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Chou(2000)의 연구 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Kagitçibasi(2000)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심리학적 전통 특히 정신분석

학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발달 심리학에서도 자기효능감, 자아실현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던 것도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심리학적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Ryan과 Deci(2000)도 탈 정신분석학적 맥락에서 자율성과 함께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자율성 획득은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청소년-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더 의존적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와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겹쳐진 자기개념’을 형성한다는 관계적 자기개념모형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 서양에서는 이미 청소년기에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약해지면서 부모와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한국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은 서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Hofstede(1980)이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구별이 문화를 설명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고 상호의존적 자아와 독립적 자아개념의 구별이(Markus & Kitayama, 199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비교의 틀을 이루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요시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비중 있는 양육목표로 여기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와 개인보다는 가족과 같은 집단이 중요하고 그 집단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시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Kim & Hoppe-

Graff, 2000) 정서적 자율성 발달은 문화 특유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물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제반 심리적 변인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너무 과장 되어있으며 한 문화권의 구성원들의 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지만(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a), 여러 문화비교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주의보다 전반적으로 관계가 중요하고(Kagitçibasi, 1996), 규범, 당위성(Triandis, 1995), 집단 소속 원에 대한 의무가(Oyserman et al. 2002b) 강조된다는 것을 수용할 때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독일은 개인주의 사회로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의 예로 분석하고 있다(Kuechler, 1993; Cha, 1994). 물론 한국이 근래에 들어 개인주의 경향을 점점 많이 띠게 되었지만 관계의존성 및 가계 중시 등을 보았을 때 독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2004)도 도덕적 정서에 있어 한국 대학생들은 규범적이고 가족에 지향된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인 것에 반해 독일 대학생들은 도구적이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시하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정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정서적 부담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있으면서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 윤리의식에 근거한 양가적인 측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정서적 자율성 개념의 확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도구(EAS)를 보완하고 이를 사용하여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을 측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문화비교 연구를 하려고 한다.

- a)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인가?
- b)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에 따른 정서적 자율성발달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c)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관계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인가?
- d)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관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e)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 양상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이의 문화적 특수성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독일의 인구 50만의 중간 규모 도시 두 곳의 (L시, K시) 8개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의 인구 100만의 대도시 (K시)와, 인구 20만의 소규모 도시 (M시) 각각 한 곳의 총 8개 중·고등학교에서 중1부터 고 2학생 834명이 표집 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학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독일의 경우에는 Gymnasium과 Realschule (혹은 Mittelschule) 학생들을 표집 함으로써 학력차이에 의해 측정결과가 왜곡

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어 특수계층의 자녀들이 밀집된 학교가 아니었다. 설문조사는 담임교사 감독 아래 각각의 학급에서 단체로 이루어졌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모두 816명이었다. 이들의 국가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의 국가별, 성별, 연령별 분포

		만12-13세	만14-15세	만16-17세	계
한국	남	61명	74명	67명	202명
	여	70명	70명	73명	213명
독일	남	72명	73명	54명	199명
	여	69명	68명	65명	202명
계		272명	285명	259명	816명

측정도구

Steinberg와 Siverberg가 1986년에 개발한 정서적 자율성(EAS) 설문지는 부모의 탈 이상화(parental deidealization),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perception of parents as people), 개별화(individuation),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non-dependency on parents)의 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 부모의 탈 이상화 척도는 부모를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부모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 부모님과 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거의 부모님 생각이 옳다.)

b)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척도는 부모도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예: 직장, 자신의 친지들과 함께 있는 상황)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 내가 없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궁금하다.)

c) 개별화 척도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된 자신만의 영역을 확립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며 자신의 생활영역이나 실제의 모습에 대해 부모가 모르는 점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 부모님이 내 생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d)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척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예: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하기 전에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EAS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Steinberg와 Siverberg(1986)는 이들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51에서 .63사이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제시된 개별화(individuation) 이론들의 틀에서 개념화된 자율성 영역 즉 내적통제, 책임감, 주체성과 부모자녀관계를 내용으로 문항들을 구성하여 요인분석하고 요인부하량 .40을 기준으로 문항들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서적 자율성 척도(책임감과 자기 통제) 두 개와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할 두개의 척도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다시 우호적인 관계와 정서적 부담감 척도로 구별되었다.

e) 책임감 척도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다

표 2. 추가문항 요인분석 결과

하위영역	문항	요인			
		I	II	III	IV
책임감	1			.749	
	2			.586	
	3			.478	
	4			.551	
자기	5		.646		
통제	6		.656		
	7		.554		
	8		.601		
	9	.704			
부모자녀 관계	10	.657			
	11	.697			
	12	.591			
	13				.424
정서적 부담감	14				.574
	15				.611
	16				.511
	고유치	3.39	2.19	1.84	1.61
설명변량(%)	56.54	21.21	13.70	11.51	10.10

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지를 측정한다. (Cronbach α = .60 예: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다.)

f) 자기통제 척도는 충동적이지 않으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Cronbach α = .65 예: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g) 부모자녀의 우호적 관계척도는 부모에게 자녀가 중요한 존재이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Cronbach α = .76 예: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도와드릴 것이다.)

h) 정서적 부담 척도는 청소년들이 자율성 획득과정에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측정한다. (Cronbach α = .63 예: 부모님의 뜻을 어겼을 때 죄책감이 느껴진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는 정서적 자율성 영역 6개 척도와 부모자녀 관계 2개 척도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EAS부분은 Latzko, Kim, & Hoppe-Graff(2002)의 독일어 본을 사용하였고 추가된 문항은 연구자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전체 설문지를 독문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에 의해 다시 한국어로 재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독일의 발달심리학 전공 교수와의 토론을 거쳐 완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은 역산 처리되었다. 따라서 각 영역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정서적 자율성이 발달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패키지로 처리되었으며 국가, 연령,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3×2 변인의 3원 변량분석을 하였다¹⁾. 연령에 따라서는 세 집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위해 Bonferroni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자율성 발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가 4점 척도

1) 독일의 경우 학교유형(Realschule와 Gymnasium)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독일 청소년집단을 학교유형으로 구별하지 않고 한국 청소년들과 비교를 하였다.

이므로 이의 이론적 중간값인 2.5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표 3 참조) 전반적으로 개별화 경향과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를 이상화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은 중간 정도이고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영역에 대한 국가, 연령,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탈 이상화 경향 즉 부모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변량분석 결과 국가($F_{(1,804)}=12.80, p=.000$)와 연령($F_{(2,804)}=20.03, p=.000$)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의 탈 이상화 정도가 더 약했고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 검사를 한 결과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부모의 탈 이상화 경향이 더

강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가와 연령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의 청소년들에게서($F_{(2,398)}=16.68, p=.000$) 한국의 청소년들의($F_{(2,413)}=5.51, p=.004$) 경우 보다 더 강하였다.

부모도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경향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국가와($F_{(1,804)}=44.06, p=.000$) 성별에 ($F_{(1,804)}=16.81, p=.000$) 따른 주 효과와 이들의 상호작용이($F_{(1,804)}=10.95, p=.001$)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따른 주 효과를 살펴보면 독일의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이 더 낮았고 성별에 따른 주 효과는 여학생들의 평균이 남학생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에 기인하나 이를 국가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와 함께 분석을 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었다($F_{(2,413)}=31.55, p=.000$). 즉 한국 남학생들보다는 한국 여학생이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더 낮은 반

표 3. 국가, 성별, 연령에 따른 정서적 자율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

정서적 자율성영역	국가(A)	성별(B)	연령(C)			전체	
			12-13(a)	14-15(b)	16-17(c)		
부모의 탈 이상화	한국	남	2.19(.50)	2.46(.40)	2.39(.45)	2.36(.46)	
		여	2.36(.48)	2.46(.53)	2.44(.46)	2.42(.49)	
		계	2.28(.49)	2.46(.46)	2.39(.47)	2.39(.47)	
	독일	남	2.33(.50)	2.60(.54)	2.64(.38)	2.51(.50)	
		여	2.29(.51)	2.52(.52)	2.68(.56)	2.49(.55)	
		계	2.31(.51)	2.56(.53)	2.66(.48)	2.50(.53)	
	전체	남	2.26(.50)	2.53(.48)	2.50(.43)	2.43(.49)	
		여	2.32(.50)	2.49(.52)	2.55(.52)	2.45(.52)	
		계	2.30(.50)	2.51(.50)	2.53(.48)	2.44(.50)	
	F	국가(A): 12.80***		성별(B): .40	연령(C): 20.03***(사후 검증: a<b,c)		
		AxB: 2.11		AxC: 3.20*	BxC: .89	AxBxC: .72	

* $p<.05$, *** $p<.001$

정서적 자율성영역	국가(A)	성별(B)	연령(C)			전체	
			12-13(a)	14-15(b)	16-17(c)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한국	남	2.21(.50)	2.08(.50)	2.12(.46)	2.13(.49)	
		여	1.91(.49)	1.87(.44)	1.84(.39)	1.87(.44)	
		계	2.05(.52)	1.98(.48)	1.97(.45)	2.00(.48)	
	독일	남	2.30(.53)	2.18(.50)	2.26(.48)	2.25(.50)	
		여	2.26(.62)	2.52(.52)	2.24(.55)	2.23(.56)	
		계	2.28(.57)	2.19(.50)	2.25(.51)	2.24(.53)	
	전체	남	2.26(.51)	2.14(.50)	2.18(.47)	2.19(.50)	
		여	2.09(.58)	2.02(.49)	2.03(.51)	2.05(.53)	
		계	2.17(.56)	2.08(.50)	2.10(.50)	2.12(.52)	
	<i>F</i>	국가(A):44.06***		성별(B):16.81***		연령(C):2.13	
		<i>AxB:10.95**</i>		<i>AxC:.25</i>		<i>BxC:.13</i>	
						<i>AxBxC:.10</i>	
개별화	한국	남	2.79(.40)	2.87(.41)	3.01(.41)	2.89(.42)	
		여	2.78(.52)	2.92(.55)	2.96(.41)	2.89(.50)	
		계	2.78(.47)	2.89(.48)	2.99(.41)	2.89(.46)	
	독일	남	2.68(.58)	2.78(.53)	2.92(.58)	2.78(.57)	
		여	2.74(.64)	2.63(.72)	2.86(.66)	2.74(.68)	
		계	2.71(.61)	2.71(.63)	2.89(.62)	2.76(.63)	
	전체	남	2.73(.51)	2.83(.48)	2.97(.49)	2.84(.50)	
		여	2.76(.58)	2.78(.65)	2.92(.54)	2.82(.50)	
		계	2.75(.55)	2.80(.57)	2.94(.52)	2.83(.55)	
	<i>F</i>	국가(A):9.58**		성별(B):.44		연령(C):8.43*** <i>(사후검증: a<b<c)</i>	
		<i>AxB:.35</i>		<i>AxC:.86</i>		<i>BxC:.44</i>	
						<i>AxBxC:1.07</i>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한국	남	2.51(.44)	2.65(.49)	2.87(.51)	2.68(.50)	
		여	2.55(.61)	2.80(.52)	2.82(.47)	2.72(.55)	
		계	2.53(.54)	2.72(.51)	2.84(.49)	2.70(.52)	
	독일	남	2.43(.61)	2.94(.55)	2.96(.46)	2.76(.60)	
		여	2.77(.62)	2.80(.55)	2.85(.62)	2.80(.60)	
		계	2.60(.63)	2.87(.55)	2.90(.55)	2.78(.60)	
	전체	남	2.47(.54)	2.79(.54)	2.91(.49)	2.72(.55)	
		여	2.66(.62)	2.80(.53)	2.83(.54)	2.76(.57)	
		계	2.56(.59)	2.79(.53)	2.87(.52)	2.74(.56)	
	<i>F</i>	국가(A):5.69*		성별(B):.86		연령(C):23.12*** <i>(사후검증: a<b<c)</i>	
		<i>AxB:.05</i>		<i>AxC:.47</i>		<i>BxC:4.35*</i>	
						<i>AxBxC:4.83*</i>	
책임감	한국	남	2.87(.63)	3.06(.54)	3.32(.47)	3.09(.57)	
		여	2.95(.53)	3.04(.56)	3.17(.52)	3.05(.55)	
		계	2.91(.58)	3.05(.55)	3.25(.50)	3.07(.56)	
	독일	남	2.92(.60)	3.15(.55)	3.23(.55)	3.09(.58)	
		여	2.97(.59)	3.03(.55)	3.22(.57)	3.07(.58)	
		계	2.94(.60)	3.09(.55)	3.22(.56)	3.08(.58)	
	전체	남	2.90(.61)	3.10(.55)	3.28(.51)	3.09(.58)	
		여	2.96(.56)	3.03(.56)	3.19(.55)	3.06(.56)	
		계	2.93(.59)	3.07(.55)	3.23(.53)	3.07(.57)	
	<i>F</i>	국가(A):.20		성별(B):.55		연령(C):19.96*** <i>(사후검증:a<b<c)</i>	
		<i>AxB:.01</i>		<i>AxC:.30</i>		<i>BxC:1.29</i>	
						<i>AxBxC:.82</i>	

p*<.05, *p*<.01, ****p*<.001

정서적 자율성영역	국가(A)	성별(B)	연령(C)			전체	
			12-13(a)	14-15(b)	16-17(c)		
자기통제	한국	남	2.97(.42)	2.86(.49)	2.72(.47)	2.85(.47)	
		여	2.96(.51)	2.92(.45)	2.97(.41)	2.95(.46)	
		계	2.96(.47)	2.89(.47)	2.85(.45)	2.90(.47)	
	독일	남	2.78(.55)	2.66(.47)	2.81(.54)	2.75(.52)	
		여	2.89(.48)	2.71(.56)	2.76(.52)	2.79(.52)	
		계	2.83(.51)	2.69(.51)	2.78(.53)	2.77(.52)	
	전체	남	2.86(.50)	2.76(.49)	2.76(.50)	2.80(.50)	
		여	2.92(.49)	2.82(.52)	2.87(.48)	2.87(.50)	
		계	2.89(.50)	2.79(.50)	2.82(.49)	2.83(.50)	
	F	국가(A): 14.46***		성별(B): 3.65		연령(C): 3.40*(사후검증: a>b,c)	
		AxB: .88		AxC: 1.44		BxC: .16	
						AxBxC: 3.13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사후 검증을 위해 실시한 Bonferroni 검사의 유의도 기준은 .05이었다.

면 독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_{(1,399)} = .25$, $p = .615$).

청소년들이 부모가 모르는 생활영역을 형성하려고 부모가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화 경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변량분석 결과 국가와($F_{(1,804)} = 9.58$, $p = .002$) 연령에($F_{(2,804)} = 8.43$, $p = .000$)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개별화 경향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더 강하였고 연령에 의한 차이는 사후 검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경향도 비교적 높았다. 국가와($F_{(1,804)} = 5.69$, $p = .017$) 연령에($F_{(2,804)} = 23.12$, $p = .000$) 따른 주 효과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F_{(1,804)} = 4.35$, $p = .013$), 그리고 국가, 연령, 성별의 상호작용에서($F_{(2,804)} = 4.83$, $p = .008$) 변량분석 결과가 유의하였다. 우선 국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독일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들보다 탈 의존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주 효과,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국가, 연령,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사후 검증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독일의 남학생들의 경우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탈 의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F_{(2,196)} = 20.02$, $p = .000$) 반면 독일의 여학생들은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_{(2,199)} = .31$, $p = .728$). 한편 한국의 경우 남학생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의존적이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을 점점 더 강하게 보이고($F_{(2,199)} = 9.17$, $p = .000$) 여학생들은 14세를 기점으로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F_{(2,210)} = 5.21$, $p = .006$).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적 자율성 척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일과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단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만 유의미 하였는데($F_{(2,804)} = 19.96$, $p = .000$) 사후 검사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 경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국가($F_{(1,804)} = 14.46$, $p = .000$)와 연령에($F_{(2,804)} = 3.40$, $p = .034$) 따른 집단 간 차이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 차이를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독일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 검사 결과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14세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자기통제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한 결과 (표 4 참조)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부모와 자신들의 관계를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F_{(1,804)}=18.22, p=.000$) 국가와 연

령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F_{(2,804)}=6.70, p=.001$)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F_{(2,416)}=2.15, p=.118$) 독일의 경우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_{(2,398)}=4.91, p=.008$).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부담의 전체 평균값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량분석 결과 국가에 따른 주효과로($F_{(1,804)}=176.44, p=.000$) 분석해보면 독일의 청소년들이 중간 정도의 정서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정서적 부담의 평균값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 별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F_{(2,804)}=8.35, p=.000$)

표 4. 국가,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

영역	국가(A)	성별(B)	연령(C)			전체	
			12-13(a)	14-15(b)	16-17(c)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	한국	남	3.60(.40)	3.64(.42)	3.66(.33)	3.63(.38)	
		여	3.61(.33)	3.66(.35)	3.74(.33)	3.67(.34)	
		계	3.60(.36)	3.65(.39)	3.70(.33)	3.65(.36)	
	독일	남	3.64(.38)	3.45(.48)	3.42(.39)	3.51(.43)	
		여	3.61(.42)	3.51(.40)	3.53(.58)	3.55(.47)	
		계	3.63(.40)	3.48(.44)	3.48(.44)	3.53(.45)	
	전체	남	3.63(.39)	3.55(.46)	3.55(.38)	3.57(.41)	
		여	3.62(.38)	3.59(.38)	3.64(.48)	3.61(.41)	
		계	3.62(.38)	3.57(.42)	3.60(.43)	3.59(.41)	
	F	국가(A):18.22***		성별(B):2.16		연령(C):1.05	
		AxB:.06		AxC:6.70**		BxC:1.03	
						AxBxC:.21	
정서적 부담	한국	남	3.27(.52)	3.13(.52)	2.95(.55)	3.11(.54)	
		여	3.20(.61)	3.02(.69)	3.06(.60)	3.09(.63)	
		계	3.23(.57)	3.08(.61)	3.01(.57)	3.10(.59)	
	독일	남	2.65(.83)	2.45(.69)	2.40(.63)	2.51(.74)	
		여	2.59(.81)	2.36(.70)	2.42(.72)	2.46(.75)	
		계	2.62(.82)	2.41(.69)	2.41(.68)	2.48(.74)	
	전체	남	2.93(.77)	2.79(.70)	2.72(.65)	2.81(.71)	
		여	2.89(.77)	2.69(.77)	2.76(.73)	2.78(.76)	
		계	2.91(.77)	2.75(.73)	2.73(.69)	2.80(.74)	
	F	국가(A):176.44***		성별(B):.60		연령(C):8.35***(a>b,c)	
		AxB:.07		AxC:.27**		BxC:1.10	
						AxBxC:.11	

* $p<.05$, ** $p<.01$, *** $p<.001$

연령에 따른 사후 검증을 위해 실시한 Bonferroni 검사의 유의도 기준은 .05이었다.

사후 검증 결과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14세 이상의 연령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적 자율성 측정 척도 중 EAS에서 사용된 4개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탈 이상화, 개별화,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영역은 각각 $r=.44$, $.46$, $.36$ 로 중간정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경향은 개별화 경향 외에 ($r=.30$) 다른 영역과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추가된 책임감은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과는 $r=.30$ 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다른 하위영역과는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 경향은 EAS의 하위영역인 부모의 탈 이상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개별화 및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과 모두 크지 않지만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흥미롭게도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자기통제와 책임감을 제외한 나머지 정서적 자율성 영역 즉 EAS의 하위영역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부모

자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부모의 탈 이상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개별화 및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경향이 강하였다. 책임감은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자기통제는 부모자녀 관계와 작지만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자녀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부담은 부모의 탈 이상화 경향,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그리고 책임감과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 통제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를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또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탈 의존경향이 강할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담을 덜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부모자녀 관계가 양호할수록 자기통제 경향이 강하고 부모 기대에 대한 부담감,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r=.36$, $p=.000$) 독일 청소년들의 ($r=.21$, $p=.000$) 경우보다 정서적 부담과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상관관계가 더 높

표 5. 정서적 자율성 영역들과 부모자녀 관계와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부모의 탈 이상화	-						
2. 평범한 부모지각	.16**						
3. 개별화	.44**	.30**					
4. 부모로부터 탈 의존	.46**	.08	.36**				
5. 책임감	.13**	-.10*	.06	.30**			
6. 자기통제	-.20**	-.14*	-.19**	-.13**	-.02		
7.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	-.44**	-.20**	-.26**	-.28**	-.01	.21**	
8. 정서적 부담	-.34**	-.04	-.05	-.29**	-.13**	.17**	.30**

* $p<.05$, ** $p<.01$

았다. 즉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정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만 12세에서 16세 사이의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개별화 경향,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탈 의존 경향이 약간 높았고, 부모상의 탈 이상화 경향은 중간정도이며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책임감과 자기통제 경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Steinberg와 Silverberg(1986)가 보고한 것과는 달리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이 부모 상 혹은 부모지각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신에 대한 통제 및 책임감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연령에 의한 집단 간 차이로 살펴본 결과 연령에 의한 차이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 영역 외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나타났는데 책임감과 개별화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해지고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성 경향과 부모의 탈 이상화는 만 14세를 기점으로 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자율성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자기통제 경향은 오히려 14세를 지나면서 약간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동반하는 청소년 중기에 더 충동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를 평

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은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연구에서처럼 낮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Lamborn과 Steinberg(1993)의 주장대로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16세 이후에서야 서서히 발달하기 때문인지는 본 연구 대상에 17세까지만 포함되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성별에 의한 집단간 차이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부모지각과 부모로부터 의존적이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에서만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EAS의 4개 척도에서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탈 이상화 정도,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는 경향,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은 모두 독일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일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독립성을 비중 있는 양육목표로 여기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화목이 강조된다고 한 Kim & Hoppe-Graff(2000)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시되는 문화권에서보다 청소년 자녀들의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더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상을 수정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관계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개별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별화경향 척도가 청소년 자녀의 생활영역이나 실제의 모습에 대해 부모가 잘 모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청소년들이 독일 청소년들보다 학교나 학원 등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부모가 자녀의 생활영역을 세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서인지 혹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기대를 의식하여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부모에게 다 보이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두 영역을 별도의 척도로 개발하여 측정하여야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통제도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독일의 청소년들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성숙의 한 지표로 강조한다는 Oerter, Agoshani, Kim & Wobowo(1996)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하는 의지는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려고하는 경향은 문화 보편적인 정서적 자율성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 모두 부모자녀 관계를 매우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도 비교적 높게 지각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연령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부모의 기대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부담은 연령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데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정서적 부담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성과 부모의 탈 이상화가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약하게 나타난 결과와 청소년 초기 즉 12-14세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들보다 더 크다고 보고한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자녀 관계를 더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면서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박영신과 김의철(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율성 획득이라는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면서도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othbaum, Pott, Azuma, Miyake & Weisz(2000)는 그들의 “문화적인 렌즈” 모델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생성적인(generative) 긴장의 관계로 정의하였고 부모-자녀 간의 갈등의 표출을 일종의 적응양식으로 이해한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화목, 조화가 강조되고 갈등의 회피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여 부모-자녀가 상호 의존적인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여 이른바 공생의(symbiotic)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한국과 같이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세대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김명언, 김의철, 박영

신, 2000; Inglehart, 1997) 청소년들이 독립적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생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의 시대, 사회적 규범 등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낄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정서적 자율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발달과업을 완수하면서도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을 갖고 있고 부모의 뜻을 어겼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의 맥락에서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Steinberg와 Silverberg에 의해 개발된 설문 문항중 부모의 탈 이상화, 개별화,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 영역은 상호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책임감은 EAS중 부모로부터의 탈 의존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모자녀 관계나 자기통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나 자기통제 능력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EAS의 모든 하위영역이 자기통제 및 부모자녀 관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혹은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부모로부터의 분리(detachment)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Ryan과 Lynch(1989), 그리고 Beyers, Goossens, Vansant와 Moors(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우호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통제, 정서적 부담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

는 정서적 부담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자율성 발달은 부모로부터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어머니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었고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대학생들이 적응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Baumrind(1980)도 자녀들의 자율성과 양호한 부모자녀 관계에 기반을 둔 부모의 통제를 좋은 양육방법으로 제안하였다. 건강한 청소년기의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율성의 발달과 좋은 부모자녀 관계에 기반을 둔 관계성이 모두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과거 정신분석에 기초해 부모로부터의 분리로서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관계성을 소홀히 하였다면 관계성을 강조한 집단주의에서는 자녀의 순종을 지나치게 강요한 것과 같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었다(Kagitçibasi, 2000). 따라서 부모자녀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이 두 문화의 바람직한 조합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개념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EAS 척도에 책임감과 자기통제를 추가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자율성 발달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율성 발달의 내용적 측면과 연구방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 차원의 자율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했다고 해서 실제 독립적이고 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입시 스트레스로 공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적 측면에서도 자율적인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율성 뿐 아니라 행동적 차원에서의 자율성도 포함하여 문화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율성 발달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Steinberg와 Silverberg(1986)는 자율성의 발달을 부모로부터의 종속된 관계에서 독립으로의 선형적인 발달로 이해하지 않고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또래의 압력에는 더욱 종속적이 되었다가 청소년 후기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를 포함시키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주관적인 자율성 발달 정도를 측정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과연 부모들은 청소년의 자율성 정도와 부모 자녀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는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유추할 수는 없다. Steinberg(2001)는 청소년 자녀들의 부모들이 부모자녀 관계를 자녀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

다고 보고하였는데 과연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자율성 획득을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이에 더 민감하게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지 부모와 청소년들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연구방법에 대한 시사점은 청소년 자율성과 같은 복합적인 구조를 지닌 연구주제를 설문지를 통한 조사만으로 문화비교 연구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르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따라 자율성 발달 정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스스로 자신만의 영역을 갖는 것이 청소년으로서의 나이에 맞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응답을 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까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자율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설문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율성 획득 정도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심층적인 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 김경희(2004).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도덕적 정서에 관한 개념화 연구: 긍정적 정서로

- 서의 도덕적 정서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17.
- 김태준(2004). 교육현장에서 세대간 갈등과 해소 구조의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57-80.
- 박영신, 김의철(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장휘숙(2005).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변인들 - 성별, 연령, 신체성숙, 주관적연령,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95-113.
- Allen, J.P., McElhaney, K.B., Kuperminc, G.P. & Jodl, K.M. (2004).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security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 1792-1805.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Rand McNally.
- Baumrind, D. (1980). New directions in socialization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 639-652.
- Beyers, W. (2001). *The detachment debate: The separation-adjustment link in adolescence*. Unveröffentlichte Habilitationsschrift,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 Beyers, W. & Goossens, L (1999). Emotional autonomy,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arenting: Interactions,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2*, 753-769.
- Beyers, W., Goossens, L., Vansant, I. & Moors, E. (2003). A structural model of autonomy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connectedness, separation, detachment, and ag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351-365.
- Blos, P. (1983). *Adolescence*. Stuttgart: Klett-Cotta.
- Cha, J.-H. (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C. Triandis, C. Kagitçibasi, S.-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pp. 157-174). London: Sage.
- Chou, K.L. (2000). Emotional autonomy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 161-168
- Erickson, E.H. (1977). *Identität und Lebenszyklus*. Frankfurt: Suhrkamp.
- Fend, H. (2001). *Entwicklungspsychologie des Jugendalters*. Opladen:Leske+Budrich.
- Flammer, A. & Alsaker, F. (2002). *Entwicklungspsychologie der Adoleszenz*. Bern: Huber.
- Franz, C.E. & White, K.M. (1985). Individuation and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Extending Erickson'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53*, 224-256.
- Freud, S. (1958).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3*, 255-278.
- Greenberger, E. (1984). Defining psychosocial maturity in adolescence. In P. Karoly & J. Steffen (Eds.), *Adolescent behavior disorders: Foundations and contemporary concerns* (pp. 54-81). Lexington, MA: Heath.
- Grotevant, H.D. (1998). Adolescent development in family contexts. In W. Damon & N.

-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1097-1149). New York: Wiley.
- Havighurst, R.J. (195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 Hofer, M. (2003). *Selbständig werden im Gespräch. Wie Jugendliche und Eltern ihre Beziehung verändern*. Bern: Huber.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Sage.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gitçibasi, C. (1996). The autonomous-relational self: a new synthesis. *European Psychologist*, 1, 180-186
- Kagitçibasi, C. (2000, May-June). *Cultural mediation of autonomy-relatedness dynamics in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Europ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Adolescence 7th Congress, Jena, Germany.
- Kandel, D. & Lesser, G.S. (1972). *Youth in two worlds*. San Francisco: Jossey-Bass.
- Kim, H.O. & Hoppe-Graff, S. (2000, July). *New perspectives on socializ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Korea: The role of Korean women*. Paper presented at 15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ultusk, Poland.
- Kuechler, M. (1993).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 in Germany: The making of a democratic society. In A.S. Huelshoff, A.S. Markovits, & S. Reich (Eds.), *From Bundesrepublik to Deutschland* (pp. 33-58).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Lamborn, S.D. & Steinberg, L. (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t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64, 483-499.
- Landgraf, J. (2003). *Emotionale Ablösung im Jugendalter: Ein Methodenstudie*. Unveröffentlichte Magisterarbeit, Universität Leipzig.
- Latzko, B., Kim, H.O. & Hoppe-Graff, S. (2002). Emotionale Autonomie im Jugendalter: Dekonstruktion einer Skala und Rekonstruktion eines Konzeptes. In E. van der Meer, H. Hagedorf, R. Beyer, F. Krüger, A. Nutmann & S. Schulz(Hrsg.), *Bericht über den 43. Kongress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Psychologie in Berlin* (S. 115). Berlin: Pabst Science Publishes.
- Markus, H.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sche, J.G. (1998). *Familienbeziehungen zwischen Schule und Ausbildung*. Münster: Waxmann.
- Masche, J.G. (2003). *Entwicklung der Eltern-Kind-Beziehung im Jugendalter und Zusammenhänge mit Problemverhalten von Jugendlichen: Ein kritischer Beitrag zur Individuationstheorie*. Unveröffentlichte Habilitationsschrift, TU Darmstadt.

- Oerter, R., Agoshani, H., Kim, H.O. & Wibowo, S. (1996). The concept of human nature in East Asia: Etic and emic characteristics. *Culture & Psychology, 2*, 9-51.
- Oyserman, D., Coon, H.M. & Kimmelmeier, M (2002a).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1, 3-72.
- Oyserman, D., Coon, H.M. & Kimmelmeier, M (2002b). Cultural psychology, a new look: Reply to Bond, Fiske, Kitayama, and Miller. *Psychological Bulletin, 128*, 1, 110-117.
- Papastefanou, C. (2000). Die Eltern-Kind-Beziehung in der Auszugsphase - Die neue Balance zwischen Verbundenheit und Abgrenzung. *ZSE, 20*, 379-390.
- Rothbaum, F., Pott, M., Azuma, H., Miyake, K. & Weisz, J. (2000).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aths of symbiotic harmony and generative tension. *Child Development, 71*, 1121-1142.
- Ryan, R.M. & Deci, E.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M. & Lynch, J.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chmitz, M.F. & Baer, J.C. (2001). The vicissitudes of measur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motional Autonomy Scale. *Child Development, 72*, 207-219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 1-19.
- Steinberg, L. & Silverberg, S.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riandis, H.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A: Westview Press.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s'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차 원고 접수 : 2006. 4. 15
수정 원고 접수 : 2006. 5. 18
최종게재결정 : 2006. 5. 19

Emotional Autonomy in Korean and German Adolescents

Hye On Kim

Jin Sun Lee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utonomy in Korean and German adolescents. A sample of 816 12-16 year olds completed a questionnaire battery concerning six aspects of emotional autonomy and two aspect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 three-way ANOVA revealed significant cultural, gender and age differences. German adolescents scored higher than Korean counterparts in the subscales of emotional autonomy of parental deidealization, perception of parents as people and non-dependency on parents. But the scores in individuation and self-control were higher in the Korean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with scores in four subscales increased over the age range studied: parental deidealization, individuation, non-dependency on parents and responsibility. Sex differences were evident on two subscales: perception of parents as people and non-dependency on parents. Both Korean and German adolescents evaluated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s positive but Korean subjects scored higher than German counterparts in emotional pressure. Self-control was the only subscale whic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ships with parents.

Keywords: *emotional autonomy, perception of parents, individuation, responsibility, self-control, relationships with parents*